

스마트시민정당 구현 전략에 관한 연구

송경석†

A Study on the Strategy for Realization of Smart Citizens Party

Keyong-Seog Song

ABSTRACT

To make the political party as active and flexible party in the smart society, many things of the party have to be changed. At first to achieve Smart citizens party, it is needed to make the regional office of the party as the smart center and change homepage of the party to active and dynamic web page. And also Parties have to act policy as fun and flexible act, because of the social changes by smart devices.

Key words : Smart, Web homepage, Smarty citizens party, Smart party center

† 호서대학교 디지털비즈니스학부 교수

논문접수 : 2011년 1월 3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 2011년 2월 7일

1. 서 론

에너지 문제, 환경문제, 경기침체 등 어려운 국가 사회 현안문제의 해결을 통해 더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회전체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 장기 저성장 극복을 위한 기존 산업구조 개편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 경제를 장기 저성장 시대에 봉착하게 하고 실업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민간기업뿐 아니라 세계 각국정부는 이러한 경제위기, 실업문제 등을 타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자원고갈, 환경오염에 따른 생태계 파괴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가능 국가발전전략수립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는 인구증가와 산업화의 진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간단하지 않다. 또한 테러, 아동 및 여성대상 범죄증가에 따른 불안감 해소 및 선제적 안전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 고령화, 저출산 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갈등의 심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금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경제적인 국가사회시스템을 구현해야 하는데, IT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시스템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IT기술의 발달은 사물의 인터넷화(internet of things)를 통해 지능화된 지식의 획득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이를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발생시킨다. 모든 사물과 유무형 시스템의 지능화를 통해 손쉽게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고, 객체간 정보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사용자에게 더 편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3].

지능화되고 더 똑똑해진 시스템을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더 똑똑해지는 스마트화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스마트폰과 다양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위치기반 서비스, 증강현실 서비스 등 스마트한 서비스 및 시스템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와 국가사회 전체 시스템이 기존서비스나 시스템보다 더욱 지능화되고 합리적인 것으로 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욕구가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지능화된 지식으로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여 사회적인 비용과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스마트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한된 자원을 극복하고 현재의 시스템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사회의 중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솔루션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국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더 행복한 사회를 실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회시스템이 스마트화해지는 과정에서 시민의 정보습득비용이 낮아지고 정보 확보과정에서 우위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모든 행동방식에 있어서 스마트한 방식을 추구하려는, 이른바 스마트시민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스마트시민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추구함에 따라 저비용의, 고효율의 해법을 추구하게 된다.

특히 국가적인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인 정치과정에서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움직임이 나타나며 시민 스스로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정치과정에 보다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며, 특히 스마트 시민의 정치과정에의 참여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1].

따라서 본고에서는 시민의식의 제고에 따른 시민 참여정치의 움직임, 스마트한 시민의 등장과 이들의 스마트시민정치 움직임과 스마트시민정치의 필요성, 이를 보장하기 위한 스마트시민정치 및 정당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스마트 IT: 스마트정치의 원동력

스마트한 사회의 형성은 모든 사물과 시스템, 프로세스에 지능을 부여하는데서 시작된다. 제품, 그리고 제품과 관련된 공급망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 서비스, 서비스의 제공방식, 자원 및 자연시스템, 인터넷정보, 라이프스타일 등 모든 것에 임베디드된 IT를 통해 지능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출

발한다. 임베디드된 IT에 네트워크를 통한 인터넷 연결을 통하여 단순하게 임베디드된 IT-디지털장비를 스마트IT로 변화시킬 수 있다. 스마트 IT를 통해 지능화된 데이터를 제공받고 다양한 분석도구를 활용해 지식과 시장트렌드, 사회흐름 등을 파악 할 수 있다. 지능화된 자료와 분석된 트렌드를 통해 스마트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고효율, 고생산성, 고품질의 더 행복한 스마트한 사회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지식정보사회가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스마트한 사회가 가능해질 것이다. 스마트사회는 사물과 시스템자체에서 지능화된 정보를 추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정보사회를 더욱 지능화시키는 업그레이드 단계라 할 수 있다[3].

이러한 스마트사회의 도래는 기본적으로 정치방식과 정치적인 의사결정자체도 스마트하게 변화시키게 된다[1]. 스마트IT가 도래함에 따라 선거방식의 스마트화에서부터 출발하여 정치적인 의사결정과정인 정치 후보자의 선출에 이르기까지 스마트정치의 도래는 이미 우리 생활방식에 밀접하게 다가와 있다. 또한 스마트 IT가 정치에 도입됨에 따라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의식구조 또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정치를 정치인의 전유물로 간주하고 상대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하던 시민들이 사회구조의 스마트화에 따라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2. 시민의식의 제고(시민참여정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특히 스마트관련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민, 시민의 경제사회현상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정치참여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관련 기술 및 기기의 발달로 시민들의 정치현상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정치관련 정보 획득의 비대칭성이 제거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정치관련 정보획득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정치인들의 정치관련 정보에 대한 독점성이 보장되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순환의 수월성 및 정보확보의 용이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특히 스마트 기기 및 기술의 발달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정

보획특이 용이해짐에 따라 일반시민의 정치관련 정보에 대한 확보 및 접근성이 용이해짐에 따라 정치인과 시민의 정치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이 없어지게 되고 시민의 정치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전의 정치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던 상황과는 달리 시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 및 참여도가 높아지게 되었다[5].

또한 스마트관련 기기 및 기술의 발달은 시민의 정치에 대한 관여 및 개입도도 증가시키고 있고, 자발적인 정치참여현상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시민의 정당정치에 대한 개입 현상의 하나로 대의원선출, 정당 최고위원의 선출, 주민소환 등 아주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치참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기기 및 기술의 발달은 자발적인 시민참여정치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되며 이는 IT의 스마트화가 시민의 스마트화를 유도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스마트해진 시민은 자발적으로 스마트시민에 의한, 스마트시민을 위한 스마트 시민정치를 발생시키게 된다.

2.3. 스마트시민정치 구현전략에 대한 이론

스마트한 시민정치는 시민에 대한 존엄, 연대, 정의라는 기본적인 시민정치의 가치를 기본으로 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구조하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양극화 성장체제를 극복할 대안적 국가발전을 위해 시민정치에 대한 열망을 구현하기 위해 민생불안의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민적 기대와 희망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자유스러운 소통의 정치가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한사람 한사람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는 시민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며[6],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 스마트화된 사회구조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민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스마트시민은 역동적 정치 담론과 정책을 보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시민사회운동과 복지국가 정치운동의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3. 스마트시민정당 구현을 위한 환경분석

3.1. 스마트시민정당의 개념

ICT가 사회변화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면서 개인의 사회참여가 더욱 역동적이고 진취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웹상에서 각종 사회적 이슈가 공론화되면서 시민과위가 확산되고, 개개인이 사회변화를 이끄는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12]. 디지털 시대의 시민은 정치를 ‘공적’이고 ‘이성적’인 것, 그리고 개인이 접근할 수 없는 ‘상위 영역’으로 여기지 않는다. 정치적인 의사통로 또한 사려 깊고, 숙의적인 논쟁보다는 사실 전달 및 강한 자극을 주는 감성적인 메시지 형태를 띤다[6]. ICT의 발달로 인한 소셜컴퓨팅 사회에서는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 참여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집단지성을 통해 사건의 정확성을 파악하고 부당한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현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시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민주주의 형태의 등장은 전통적인 대의제와 결합을 이루며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JM Morino-Jiménez[13]는 대의제와 직접민주정의 한계를 최대한 극복하고 이를 결합한 e-Cognocracy(Cognitive Democracy)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e-cognocracy는 지적이고 학습된 이들의 교육, 커뮤니케이션과 공존을 통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증진, 삶의 질 향상과 결속의 증진을 도모하는 보다 나은 사회, 그리고 복잡성이 증가하는 세계의 발전된 미래 건설을 추구한다. 전통적인 민주주의가 ‘일인일표주의’(one person one vote)와 정치적 결정에 대한 정당의 여파를 특징으로 한다면, e-cognocracy는 “네트워크에 의해 형성된 개방적이고 공적인 선택을 통해 시민 스스로에 의해 여파된 사실에 근거한 ‘한 사람의 다양한 생각’(one man many ideas)”으로 정의 된다[37]. 스마트시민은 이와 같이 “집합된 의사에 근거한 지혜와 덕성을 갖춘 시민으로서 파듯한 감성과 냉정함을 갖춘 ‘분별 있는 시민’(informed citizen)으로 상호 공존을 위한 연대와 실천의 가치를 존중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구성하기 위해 각종 공공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 도입된 스마트 폰의 등장과 열풍이 웹 2.0 플랫폼과 결합되면서 소셜컴퓨팅 사회로 급속히 이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사회·문화 영역 뿐만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도 도입되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치영역에서의 다양한 논제들은 이미 유권자는 변화하고 있는데 퇴행적 정당구조나 정당체제는 미래의 정치사회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강원택[2, 4]은 디지털 환경의 대두에 따른 정당조직의 위기를 두 가지로 꼽고 있다. 첫째, 지역주의라는 집단적 정체성에서 벗어나 어떻게 개인화된 정치 참여의 변화 속에 적응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둘째, 여론형성에서 개인이 주도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면 정책 생산이나 사회적 네트워크에 취약한 정당은 어떻게 재조직할 것인가의 문제를 낳는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대안적 시각에서 ‘스마트시민정당’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정당은 그 모습과 양상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정치구조와 정당구조를 스마트시민정치가 가능하도록 스마트시민정당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스마트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에 아이폰이 등장한지 일년이 채 되지도 않아 사회구조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정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 급속하게 스마트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5].

3.2. SWOT 분석을 통한 스마트시민정치 구현전략 모색

SWOT분석 또는 SWOT 행렬분석은 “조직의 외부적인 위협요소(Threats)와 기회요소(Opportunities)를 내부적인 취약점(Weakness)과 강점(Strengths)을 대응시켜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개념적인 틀”로서 조직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SWOT행렬은 다음과 같은 조직의 강약점, 취약점 등을 나타낸다.

<표 1> SWOT 행렬

	내부의 강점들 (Strengths)	내부의 약점들 (Weaknesses)
외부의 기회들 (Opportunities)	O-S의 요소들	O-W의 요소들
외부의 위협들 (Threats)	T-S의 요소들	T-W의 요소들

SWOT 분석은 <표 1>과 같이 상황 분석을 위해 단순한 모양의 행렬로 이루어진 틀을 이용하여 기존의 조직의 경쟁력 분석을 위한 모형인 다른 모형들보다 단순하면서 명료한 경쟁력을 대변하는 요소들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WOT분석을 조직의 전략수립에 활용한 사례를 보면 <표 2>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전략 수립에 대한 SWOT 분석 활용 사례

학자	내용
Weihrich [10]	독일의 경쟁력 분석 및 전략을 제시
Murillo [7]	터키의 첨단 기술 산업의 발전전략을 SWOT/TOWS 행렬을 이용해서 분석 국가 단위의 기술개발전략으로서의 활용틀 제시
Schreder [9]	보건산업을 분석하는 틀로서 단순화된 SWOT 행렬을 이용해서 초기에 제기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정책을 수행하는 조직의 효율성 증진 도모

(자료원: Weihrich, 1999; Murillo, 1999; Schreder, 2002)

또한 이 분석 방식은 그 대상이 다양해서 하나의 경제단위인 국가의 총체적인 경쟁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한 국가의 특정한 산업의 경쟁력이나 그 국가에 속해 있는 특정한 조직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분석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표 3> SWOT 전략 유형과 내용

전략	유형
T-W 전략 (집중화 혹은 철수)	환경의 위협요인이 많으며 현재 해당 주체의 핵심역량도 부족한 경우로서 경제 주체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장을 재구축(Restructuring)하여 해당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을 쓰거나 극한 상황으로서 시장에 진입하지 않거나 이미 진입한 시장에서는 퇴출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음
T-S 전략 (시장침투, 제품계열 확충전략)	시장의 위협요인이 있으나, 해당 주체가 상대적 강점을 갖고 있는 경우, 그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공격적 시장침투 전략을 쓰거나 확충하는 전략을 추구할 수 있음
O-W 전략 (핵심역량 강화, 전략적 제휴전략)	시장의 기회는 존재하나 해당 주체의 핵심역량이 부족한 경우로서 주체의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시장기회를 잡는 핵심역량 강화전략을 쓰거나 시장의 기회를 먼저 포착하면서 주체의 핵심역량을 보완하는 전략적 제휴전략을 선택할 수 있음
O-S 전략 (시장선점, 다각화 전략)	시장기회가 있고, 해당 주체의 전략적 강점이 많은 매우 좋은 상황임 이 경우에는 시장의 기회를 선점하는 전략을 구사하거나 시장/제품의 다각화 전략을 추구할 수 있음

SWOT분석방식을 이용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갖는다. 전략요소를 선정하는 원칙으로는 첫째, 시장구조 정의: 시장구조를 정의함에 있어 그 경제주체가 속해 있는 시장의 구조, 즉 공급자와 수요자의 구성형태와 성향, 새로운 공급자의 진입의 가능성, 기존 수요자가 새로운 공급자로서의 수요를 변환할 가능성 등을 파악해야 한다.

둘째 환경의 검토를 검토한다. 즉 현실의 환경을 검토함에 있어 이들 환경이 선택할 전략이 부합하기 위해 향후 다가올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이하게 예상된 환경들에 대해 다른 전략에 대응할 준비도 해야 한다.

셋째, 경제주체의 내부 역량을 평가한다. 분석대상이 경제주체가 지금까지 누적시켜온 지식과 능력이나 연관된 산업에서의 경험 등을 검토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토대로 향후의 개발 여지를 분석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필요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넷째 실현성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가능한 기회의 포착을 목적으로 한 전략을 제시하면서 해당 경제주체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보강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한다. 적절한 전략은 그 경제주체가 안고 있는 취약점을 조정하면서 강점을 활용해서 그러한 요소들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중요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3.3. SWOT방식을 이용한 스마트시민정치 구현전략 모색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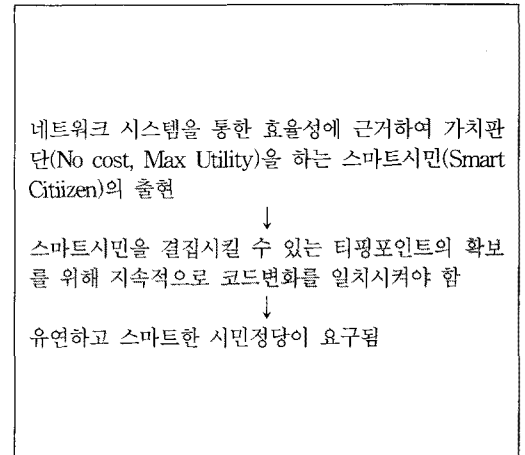
이런 스마트현상속에서 기존 정당이 스마트시민정당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스마트시민정당의 구현이 가능할 것인지 기본적인 환경 분석을 SWOT분석을 통하여 시도할 수 있다. 사회구조가 스마트해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민주당의 예를 들어 스마트시민정당 구현을 위한 강점을 분석해보면 위의 <표 4>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몇가지를 찾아볼 수 있다. 민주당의 경우 과거 두차례 집권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변화의 흐름과정속에서 변화의 결정적인 키포인트인 티핑포인트의 변화를 파악하여 집권과정에 중요한 요소로 활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 정치의 티핑 포인트를 적절히 파악할 경우 시민이 폭발적으로 집결할 수 있음을 노사모의 경우를 통하여 경험하였다. 또한 전자투표 등 사이버정치에 대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상대적인 약점을 찾아보자면 정치에 무관심한 다수의 20대~30대를 지지층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계층이 활발한 뉴미디어,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인터넷정치를 시도하여 이들 계층의 결집을 부단히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외부적인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기회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인으로서는 강자보다는 약자를, 피

<표 4> 스마트시민정당 구현 기본환경분석 사례

<p>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티핑포인트)의 파악을 통해 시민이 폭발적으로 집결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경험(노사모) - 전자투표 등 사이버정치에 대한 경험 - 시민정치의 참여를 통한 과거 집권경험 	<p>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에 무관심한 다수의 20~30대 - 활발한 뉴미디어, 소셜네트워크의 활용 - 한나라당의 활발한 인터넷정치 시도 - 한나라당의 민첩한 사안별 대처
<p>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자보다는 약자를, 피해자를 지지하는 스마트 시민의 속성 -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 롱테일한 시민구조 	<p>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시민의 출현 (Smartizen) - 스마트문화의 대두 - 급속하게 변화하는 스마트사회환경 - 정당의 기능과 역할 변화



해자를 지지하는 스마트시민의 속성을 들 수 있으며,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부여도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는 한나라당에도 기회요인으로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면 스마트문화의 대두, 스마트시민의 출현, 급속하게 변화하는 스마트사회환경은 위협요인으로 존재하지만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SWOT요인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요인들을 통하여 기본적인 SWOT분석을 해보면 네트워크시스템을 통한 효율성에 근거하여 저비용에 고효율을 추

1) 작은 아이디어가 커다란 추세로 변화하며, 이 과정에서 극적인 전환, 또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당시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순간의 변화가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변화하는 변화의 틀[2]

구하는(No Cost, Max Utility) 가치판단을 하는 스마트시민(Smart Citizen)이 출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스마트시민을 결집시킬 수 있는 터핑포인트를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시민의 코드변화에 지속적으로 가치판단의 기준을 일치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회구조의 스마트화 현상에 따라 등장한 스마트시민의 가치기준에 부합시킴으로 성공적인 정당구조를 가지려면 유연하고 스마트한 시민정당이 요구된다.

4. 스마트시민정당 구현방안

이러한 유연하고 스마트한 시민정당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정당운영의 기본전략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정치구조가 당원의(에 의한, 을 위한) 정치구조 및 운영방식을 가졌다면 성공적인 스마트시민정당으로 변화하려면 스마트시민의(에 의한, 을 위한) 정치로 정치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4.1 스마트시민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

고대 역사를 볼 때 정치라는 시스템이 형성되던 과정에서 정치의 주체는 시민이었다. 그러나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정치구조가 귀족에 의한 정치인에 의한 정치로 정치구조가 변화하면서 현재 한국정치的主體는 당원으로 변화하였다.

그렇지만 정치경제사회구조가 스마트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성공적인 정치를 구현하려면 정치의 주체가 스마트시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치구조를 스마트시민정치가 가능하도록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한국정치의 주체를 형성하고 있는 현재의 기존정당이 구조를 스마트한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현재 한국정당구조가 스마트정당으로 변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정치와 정당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전략이 변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스마트사회의 기본은 스마트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그리고 시민주도적인 문화의 형성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스마트시민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여유롭게 즐기고 공유하는 기본 골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시민의 원칙을 볼 때 스마

트시민정치의 기본은 정치를 놀이화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과제를 갖게 된다. 스마트시민정치의 기본은 정치권이 놀이터로 변화해야 스마트시민에 의한 정치가 가능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4.2 스마트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정당구조의 변화

현재 가치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구조의 스마트화에 기존정당이 적응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 정치를 즐길 수 있는 구조로 정당구조를 전환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스마트시민에 의한 정당의 등장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새로운 스마트시민에 의한 정당의 등장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정당은 자발적인 정당구조의 변화가 아닌 수동적으로, 외부적인,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의해 정당구조를 스마트시민정당구조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야기시킬 것이다.

4.3 정치의 놀이문화화

스마트시민정치의 기본은 기존의 스마트사회에서 스마트시민들이 여러 가지 정치경제문화적인 변화에서 구현하였던 것처럼 정치를 놀이화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공적인 스마트시민정당을 구현하고 스마트시민정치가 가능하려면 정치놀이터가 형성되어야 한다. 기존 정당들 역시 급속하게 스마트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구조속에서 생존이 가능하려면 스마트시민들에 의해 유희적으로 자발적으로 정치놀이터의 구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신속적인 정치가 가능하도록 정당구조라 변화해야 한다.

현재의 정당이 자신의 정당에 의한 정치놀이터가 마련되도록 정당구조를 변화할 수 있어야하고 이를 위한 정치놀이 문화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놀이문화가 구현된 상태에서 정치놀이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들이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정당이 스마트 시민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실행전략 역시 '저희 정당으로 놀러 오세요'라는 다소 가벼운, 부담없는,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

어 낼 수 있는 형태로 정당의 모토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4.4 구체적인 구현방안

4.4.1 스마트정치센타의 구축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 보면 첫째, 오프라인상에서는 기존 지역정치의 중심인, 그리고 비록 법률상으로는, 규정상으로는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지역구 사무실을 스마트정치센타로 전환하여 당원을 위한 공간이 아닌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공간에 지역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공간을 방문하는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현재의 지역구 사무실은 당원들의 그것도 핵심당원의 사무실로 변질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굉장히 밀폐되어 있는 구조이다. 아주 단순히 생각해볼 때도 과연 지역구 사무실이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그리고 일층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구가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이런 폐쇄적인 밀폐된 지역구를 어느 시민이 방문하고 자신의 관심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기존의 폐쇄적인 지역구 사무실을 현재 스마트사회에서 열심히 모색하고 있는 스마트워크센타처럼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지역구를 스마트정치센타로 전환하여 스마트시민 누구든지 어느 정당의 시민이든지 자발적으로 찾아오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고 즐겁게 정치사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화시켜야 한다.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는데 정당구조가 변화하지 못한다면 이런 정당구조는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오프라인상에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즐겁고 자유로운 스마트정치센타를 구현해야 한다.

4.4.2 온라인 정치센타의 구축

온라인상에서도 하루 빨리 다양한 방식에 의한 스마트정치, 스마트정당 구조를 구현해야 한다. 기존의 인터넷을 이용한 인터넷사이트를 더욱더 개방적으로, 더욱더 유연하게 이용이 쉽게 정치데스크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의 인터넷 사이트를 다

양한 스마트수단들과 연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치 포켓이 구축되도록 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정치관련, 사회관련 의견을 올릴 수 있고 정치, 사회, 문화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정치포켓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러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치포켓은 특정 정당위주로 구현하기 보다는 국회차원에서 이를 구축하여 어느 정당이나, 그리고 어떤 정치를 표방하는 정당이거나, 그리고 심지어 정치놀이를 하는 학생집단조차도 이 포켓상에서 정치놀이를 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나의 포켓에서 어느 정당의 의견이든, 어느 정당의 당원이든 의견을 서로 개진하고 정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변화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데스크도 마찬가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런 변화는 탭을 이용한 방식인 정치핸디를 구축할 때도 동일하게 구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스마트정치의 수단이 어떠한 수단이던지 스마트시민에 의한 의견개진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온라인 상의 스마트정치가 구현될 수 있는 시스템은 특정정당에 의해 난립되는 형태가 아닌 국회차원에서 온라인 스마트정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느 정당이든, 심지어는 소수정당까지도, 그리고 정치실험을 하는 학생들까지도 자유로이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현재 스마트 시스템의 기본인 웹상에서도 시민들이 자유로이 접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당의 홈페이지를 당원에 의한 홈페이지가 아닌 시민들의 홈페이지가 되도록 전환시켜야 한다. 가입한 시민들을 당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추후의문제인 것이다. 이는 인터넷 웹페이지 구현의 기본전략이다. 쇼핑몰을 운영할 때도 일단은 회원을 유도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들이 해당 쇼핑몰상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으로의 전환은 추후의 문제인 것이다. 가혹하게 말하면 현재 각 정당의 홈페이지를 하루에 한번 아니 심하게는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방문하는 당원이 얼마나 될까? 아니 당 간부조차도 얼마나 자주 자기 당의 홈페이지에 접속할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할 정도이다.

웹사이트 구축의 기본전략을 원용하면 스마트시민이 정당의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유희하며 서핑할 수 있으려면 모티브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주어진 정보만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적극적으로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 받는 쌍방향적인 형태의 웹을 구성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기본전략이다.

4.4.3 다양한 모티브의 모색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티브를 모색해야 한다. 먼저 현재 절대다수의 부동산을 형성하고 있는 20~30대를 정당웹사이트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장 호감을 갖는 부분인 무료문자메시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루 두세건의 무료문자를 제공하고 그후 추가로 제공되는 문자메시지는 여타기관이나 사이트에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저렴하게 문자메시지를 제공하되, 과금시 일정 금액을 상회하는 부분을 정치후원금으로 제공하도록 모색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민주당 웹사이트에 하루에 세건씩 무료문자메시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설계하고 세건 이상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추가로 건당 문자메시지에 20원씩의 과금을 하고 원가(예를 들면 원가가 15원이라 하면)를 상회하는 부분(5원)은 민주당에 정치후원금으로 제공할 것인지 동의를 받는 기능을 설치하여 정치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

현재의 스마트사회는 아주 동태적이며 능동적인 유기적인 생명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홈페이지상에 유튜브를 접목시켜 데스크 동영상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정당 홈페이지상에 데스크 동영상기능을 추가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정당기자를 모집하여 이를 당원기자, 시민기자, 대학생기자, 어린이 기자 등으로 세분화하여 이들이 민주당에서, 그리고 정치현장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기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제기될 수 있는 서버상의 과부화현상은 이런 기록들이 일정시간이 지나면 유튜브나 기타 동영상 제공업체에 동시에 업로드시키고, 정당사이트에 제공되어 있는 동영상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유튜브 등에 링크만 시킴으로 서버과부화현상은 쉽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추가로 아주 단순한 제안을 한다면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QR코드 만들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거의 모든 기업이나 단체에서 심지어는 개인이 명함을 만드는데도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아직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니러나라 할 수 있다.

5. 결 론

스마트기기의 활성화 및 확산에 따라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가 스마트화되는 현상의 확산으로 정치구조역시 스마트정치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하는 필연적인 운명을 정당들이 맞이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정당자체가 스스로 등장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 정당이 정치와 정당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극단적인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극단적으로는 붕괴될 가능성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사회구조의 스마트화가 더욱더 진전됨에 따라 시민자체가 스마트해지는 현상이 나타나 스마트시민이 등장하게 되고, 스마트시민에 의해 정치가 주도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즉 스마트시민정치, 스마트시민정당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존정당들이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으려면 정당 및 정치구조를 스마트시민에 의한 정당 스마트시민에 의한 정치가 가능하도록 정당 및 정치구조를 변화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지역구 정당구조를 스마트정당센타로 전환하여 시민들과의 소통창구를 만들고 기존정당이 이미 구축하고 있는 다양한 웹상의 소통수단을 스마트기기와 연동하여 인터넷상에서도 통합된 소통의 의사전달수단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는 현재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셜미디어수단을 통한 스마트시민정당을 구현하고 실현하는 방안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원태, 인터넷과 정치참여: 정당 정치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한국행정학회, 2006.

[2] 말콤 글래드웰, 티핑 포인트, 21세기 북스, 2004

[3] 박선주, 정원모, 공공부문의 성공적인 소셜 미디어 도입 및 활용전략,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4] 백인수, Smart IT를 통한 Smart KOREA 구현방안,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5] 윤성이, 유석진, 조희정, 인터넷 정치참여와 대의민주주의: 2008년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국회 입법조사처, 2008

[6] 이상이, 역동적 복지국가와 시민정치운동, <http://blog.naver.com/math8529?Redirect=Log&logNo=130097304208>, 2010.

[7] 조대엽, 한국민주주의와 촛불시위, ssh동사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8.

[8] 조희정, 네트워크사회의 정치와 민주주의,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0

[9] Murillo, Luis(1999) " Economic Opening Strategic Alliances, and Military: The Development of the High-Technology Sector in Turkey", European Business Review, 12, pp. 157~169.

[10] Porter, Michael E.(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 Free Press.

[11] Schraeder, Mike(2002), "A Simplified Approach to Strategic Planning", Business Process Management Journal, 8, pp. 8~18.

[12] Wehrich, Heinz(1999), "Analyzing the Competitiv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Germany with TOWS Matriz - An Alternative to Porter's Model", European Business Review, 99, pp.9~22.

[13] JIMÉNEZ, MORENO, José María(2010), 「E-Cognocracy : the Knowledge Society Democracy」, http://crossroad.epu.ntua.gr/files/2010/04/10_JMMJ_CROSSROAD.pdf



송 경 석

1988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경제학사)

1991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경제학석사)

2001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경제학박사)

1990-2001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조사역

2008.8-2009.8 샌프란시스코주립대학 교환교수

200~현재 호서대 디지털비즈니스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전자금융, 디지털정책

E-Mail: keyong@hoseeo.edu

스마트시민정당 구현 전략

송 경 석†

요 약

사회구조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스마트 기기의 등장에 따른 사회구조의 급속한 스마트화에 따라 정치구조 역시 이러한 스마트화 현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사회구조의 스마트화에 따라 시민정신 역시 스마트하게 변화하고 스마트 시민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스마트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시민정당과 스마트시민정치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구 당사구조를 스마트정치센터화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존의 온라인 웹상에서 구현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스마트화 되어가는 구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역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당은 점차 스마트사회 구조속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스마트시민에 의한 스마트시민정당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키워드 : 스마트, 스마트시민, 스마트시민정당, 스마트정치센터